



학회장: Kyung-Seok Choo
(추경석)
School of Business and
Criminal Studies
Utica College, NY 13502
kychoo@utica.edu

부학회장: Hyeyoung Lim
(임혜영)
Dept. of Criminal Justice
University of Alabama
Birmingham, AL 35294
hyeyoung@uab.edu

총무: Sinchul Back
(백신철)
Dept. of Sociology,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University of Scranton
Scranton, PA 18510
Shin-chul.back@scranton.edu

회계: Hannarae Lee
(이한나래)
Dept. of Criminal Justice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h2lee@bridgew.edu

뉴스레터 편집장: Heeuk D. Lee
(이희욱)
Dept. of Criminal Justice
Weber State University, UT
84408-1206
heeuklee@weber.edu

Inside this Issue:

학회장 인사말	1
2019-2020 학회임원진	4
Future CJ & COVID-19	7
Online Teaching Tips	12
특별기획	15
회원인사 및 연구 활동	21
학교소개	24
공지사항	27

Editor's Summary / 학회장 인사말

Editor's Summary

- KOSCA Organizational Chart
- 위원회/학술분과 보고
-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 KOSCA Online Teaching Tips
- 특별기획 [1]: Interview with Dr. Liqun Cao
- 회원인사 및 연구활동
- KOSCA 학술분과위원회
- 특별기획 [2]: 학교소개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 공지사항

학회장 인사말

재미 한인범죄학 회원분들께,

2020년 우리 사회는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혼돈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new normal"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있으며, 회원분들이 소속된 기관에서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가을 학기를 맞이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시련과 좌절 속에서 사회 곳곳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이들의 봉사와 선행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도전의 시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고 더욱 강하게 만들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인종 갈등과 편견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기에, 이번 호 학회장 인사말은 지난 6월 9일 회원분들에게 보내는 글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COVID-19 바이러스로부터 여러분과 가족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최근 경찰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한 George Floyd, Breonna Taylor, and Ahmaud Arbery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사회의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법체제(경찰)의 제도적 학대가 만연함을 인지하고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희생자들과 흑인 공동체가 겪어온 아픔을 가슴으로 느끼며, 그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촉구하는 변화를 지지합니다.

지성의 상아탑에서 진리를 추구하며, 올바른 인재육성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우리들은 현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는 태도와 본질을 왜곡하는 이슈들(예를 들면 시위 참여자들의 폭력성 혹은 antifa 개입 등)에 대해 민감하고 현명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33년 전 대한민국 정부의 부패와 탄압에 반대하며 시위에 참여했던 당시 대학생 및 시민들을 저희들은 역사 속에서 목격했습니다.

(Continued on page 2)

학회장 인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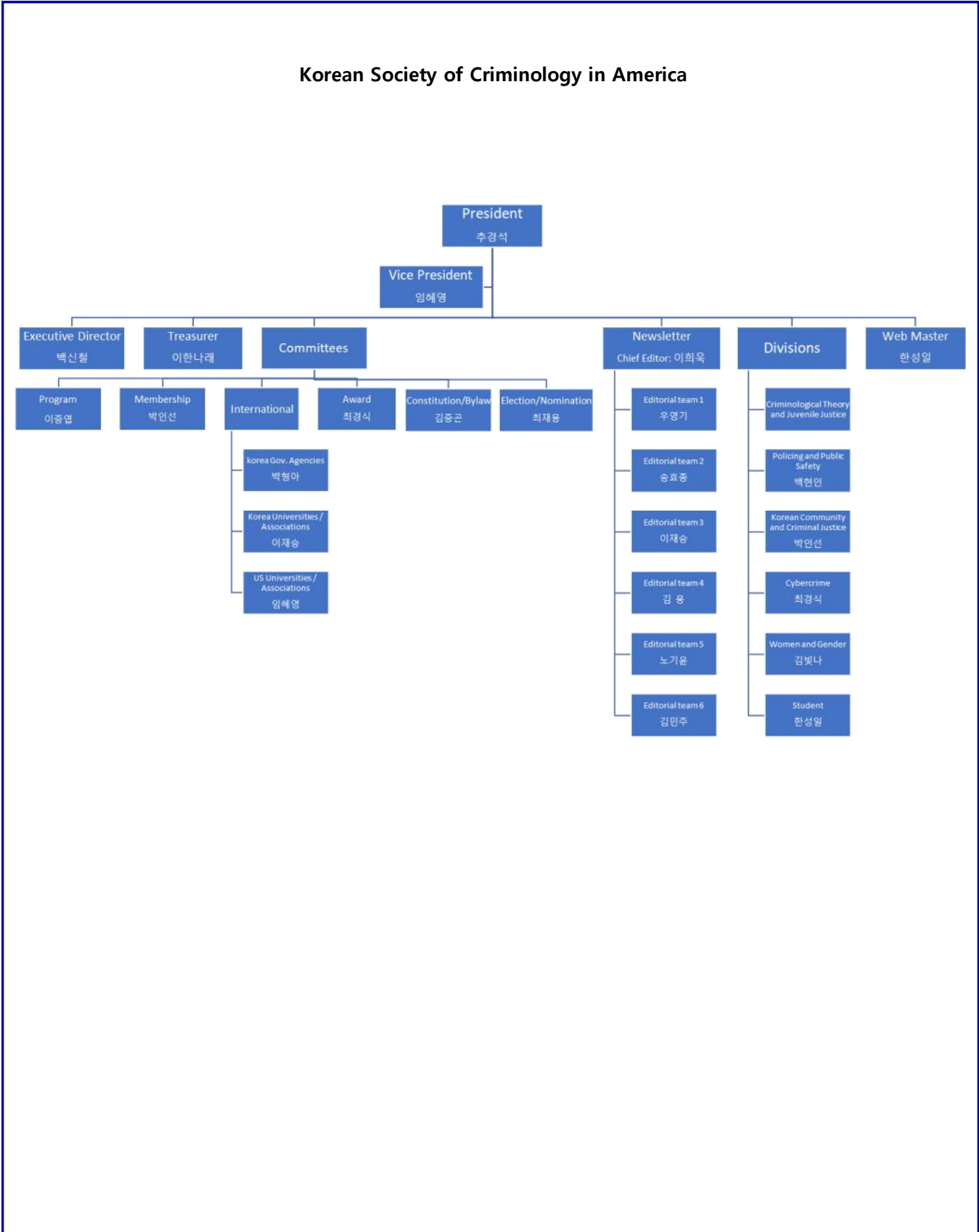
대학생들의 분노는 폭력적으로 분출되었고, 지성의 정점에 있었던 대다수의 교수들은 그들을 외면하거나 침묵했으며, 정부는 시위대를 폭도, 혹은 북한 지령을 받은 국가전복자들로 왜곡하며 경찰과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탄압했던 대한민국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달라졌지만 이들을 지지하는 이들과 또한 정반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편견과 왜곡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숙한 사회공동체는 사회적 고통의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편견이란 (무)의식이 차별이라는 행위로, 만연된 차별은 제도적 학대로, 그 결과물인 부도덕한 경찰관들 혹은 비윤리적인 공무원들로 파생된 사회적 고통을 몇몇의 개인적인 일탈로 책임을 전가시켜왔습니다. 이번 사태는 사회적 고통의 주체로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존 사법체계에 대한 저항이고 개혁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장래 미국 사법체계를 이끌어 나갈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차별과 사회고통을 끊고 더욱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는 과정의 하나인 "Black Lives Matter" 운동에 어떻게 참여할지를 고민하고 나누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회원들 개인이 소속된 조직 및 대학,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함께하는 다양한 참여방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각 회원들의 삶과 개인의 역할 속에서 현재의 문제를 가슴깊이 통감하며, 지역사회의 대화에 참여하고, 혹은 소속 대학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동료 교수들과 함께 과학적이고 선험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세미나 등을 추진해도 의미 있는 활동이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안과 좋은 의견도 청취할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추후,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에 따른 학회 차원의 대외 공지 및 회원들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원분들과 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회장 추경석 배상



KOSCA Organizational Chart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Cybercrime

저희 사이버범죄 학술 분과에서는 회원님들과 함께 분기별 미팅을 통해 사이버범죄의 다양성과 심각성, 그리고 예방 방안에 대한 융복합적인 관점이 반영된 연구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분과장님과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인해 많은 행사 및 연구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먼저 COVID-19으로 인해 많은 행사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저희 사이버범죄 학술 분과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초청발표 및 트레이닝을 해주셨습니다. 5월 1일에는 최경식 분과장님께서 Cybercrime Podcast를 통해 다양한 사이버범죄를 설명하기 위한 Cyber-Routine Activities Theory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주셨으며, 8월 6일에는 LA 총영사실의 요청으로 COVID-19과 관련된 사이버 문제점에 대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Special Webinar (COVID19 and Cybercrime) for Korean American Business hosted by the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and Pacific Asian Consortium of Employment (PACE).

현재 콜롬비아에서 Innovation and Police Science Center 디렉터로 계신 Mike-Toro 회원님께서는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초청으로 Specialized Digital Training: Identification of Crime in Cyberspace and the Context of Cybercrime 교육을 담당해주셨습니다.

아홉 국가 간의 공동체로 형성된 the International Observatory of Computer Crime 초청으로 분과장님과 회원님들께서 다양한 분야의 주제로 현재까지 3번의 Webinar를 개최하여 남미와 유럽지역에서 사이버범죄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과 학자분들과 함께 연구발표와 토론의 장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5월 14일에는 분과장이신 최경식 교수님께서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Research to the Containment of Cybercrime에 관련하여 발표를 해주셨고 7월 16일에는 추경식 교수님께서 Investigation of Illicit Use of Financial Services: Counteracting Cyber-Economic Crime 관련 연구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한나래 교수님께서 9월 17일에 Cybersecurity & Video games 관련 발표 및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각 webinar에 관심이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Dr. Kyung-shick Choi (https://www.youtube.com/watch?v=n82CbEq4Kho&ab_channel=IntoccObservatory)

Dr. Kyung Seok Choo (https://www.youtube.com/watch?v=f6Uba1P_Jy0&ab_channel=IntoccObservatory)

Dr. Hannarae lee (https://www.youtube.com/watch?v=JalfVLgrCtl&ab_channel=IntoccObservatory)

또한 COVID-19으로 인해 취소된 ASC행사를 대신해 올해 9월 10일과 11일에 the ASC Division of Cybercrime 과 the ESC Cybercrime working group 공동으로 주최된 Cybercrime Online Conference 통해 저희 회원분이신 Jin R. Lee학생이 juvenile hacking에 관한 연구를 발표해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와 함께 사이버범죄 분과장이신 최경식 교수님과 학생회원인 김기범 학생과 한치호 학생의 공헌으로 Cybercrime Investigation: Search & Seizure of Digital Evidence Virtual Training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습니다. 많은 학회원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Continued on page 5)

학술분과 보고

Link: <https://my.matterport.com/show/?m=B2MScsB7NnU>

마지막으로 작년 분과장님과 대다수의 저희 회원님들이 참여한 Cybercrime and Cybersecurity Research Group인 the Center for Cybercrime Investigation & Cybersecurity (CIC)와 WestEd 공동으로 The Office of Juvenile Justice and Delinquency Prevention (OJJDP) 통해 받은 grant을 통해 현재 Internet Crime Against Children (ICAC) Task Force Training Program Assessment를 최경식 교수님과 이한나래 교수님께서 진행하시고 계십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모로 활발한 활동을 해주시는 저희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와 함께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을 논의하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분과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나 멤버관리 회원 이한나래 교수 (h2lee@bridgew.edu)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The Division of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is committed to improving the safety of Korean immigrants and nationals (and other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 the United States. It seeks to accomplish this goal through promoting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community and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division recognizes the increasing number of racial and ethnic minorities including Korean Americans, and intends to facilitate the collaboration of scholars,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community members to improving system-community relations. 미국 내 한인 및 다른 소수 인종, 이민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연구, 토론, 공동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가입 신청은 박인선 교수 (ipark@uakron.edu)에게 부탁드립니다.

Division of Police and Public Safety

Policing and Public Safety분과 세부 활동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Policing and Public Safety 분과에서는 최근 실시된 KOSCA 분과별 통폐합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분과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총 5차례의 분과 미팅을 진행하여 분과 회원간 적극적인 교류를 증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다수의 연구가 제안되었으며, 논문 출판을 위한 공동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Secondary Data분석을 통한 국가간 비교 또는 미디어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향후 Policing and Public Safety에 관한 다양하고 시기적절한 주제들에 관심을 갖고 연구들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KOSCA회원분들중 Policing and Public Safety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연구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현인 교수 (h0baek01@nmsu.edu)

(Continued on page 6)

학술분과 보고

Division of Women and Gender

Women & Gender Division 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해 다양한 주제의 webinar를 개최함으로써, 배움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21일 (토)에 조수정 교수님 (Southern Illinois State University) 의 Growth Mixture Modeling에 관한 통계 강좌를 회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개최하였습니다. 올 가을 학기에는 10월 10일 (토)에 Writing Tips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재미 한인 범죄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출판을 하면서 직면하는 문제점이나 어려움들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Zoom Meeting을 가질 예정입니다. 함께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시고 WGD에 관심있는 분들은 Chair 김빛나 교수, (bitna.kim@iup.edu)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편집부: 노기윤

Miller & Blumstein. (2020). Crime, Justice & the COVID-19 Pandemic: Toward a National Research Agenda 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COVID-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범죄의 양상에도 새로운 패턴과 추세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정책적 대응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OVID-19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위험'에 대한 공포, 경제 불평 등의 심화, 의료체계 붕괴, 그로 인한 혐오/불신 감정의 확산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과 연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향후 범죄의 양상들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을 매개로 한 비대면적 관계 및 상호 작용이 보다 넓고 중요하게 통용되면서,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또는 온라인을 매개로 한 범죄들과, 이들 범죄들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도 우리들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호에서는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범죄와 형사사법 체계에서 예측되는 변화들을 논의하고 있는 글 (Miller & Blumstein 2020)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 사회과학자들은 제한적 사람간 접촉, 불안감, 실업, 가정 불화와 같은 현상들의 영향력에 대해 재빠르게 실시간 데이터를 모으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criminology 와 criminal justice 분야에서는 대중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형사사법시스템의 범위 안에 있는 개인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서 유사하고도 복잡한 선택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가 몇몇 유형의 범죄 (예를 들어, lack of guardianship에 의한 상점을 대상으로 한 도난범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반면 다른 유형의 범죄 (예를 들어, 집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 주거 침입범죄 감소)는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국가차원의 사회적 문제들은 현상에 대한 빠른 설명과 해결법을 찾는 데 있어서 빠른 연구 결론을 짓는 경향이 있다. 현재까지 나온 일찍 출판된 연구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일찍 출판된 연구들은 현상에 대한 설명이 현실에 정확하게 항상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강력한 정책에 대해 성급하게 일반화 시키는 것 등과 같이 제한된 점들이 많다. 반복적인 연구 결과가 없는 연구들에 대해 과도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더 신중할 것이라 본다.

아마도 형사사법시스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 간의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에 대한 우려가 아닐까 한다. 체포된 자들 중 어떤 이는 수감되어야 하고 어떤 이는 석방되어야 하는가? 유죄 판결이 난 자들은 징역에 처해져야 하는가 아니면 보호관찰에 올려져야 하는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높은 위험성 때문에 혹은 재범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안전하게 석방될 수 있을까? 등의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 국가차원의 COVID-19 연구 프로그램은 현재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가올 또 다른 전세계적 전염병을 대비하여 변화할 수 있는 형태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란 점에서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ntinued on page 8)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바이러스는 부분적으로는 정상적인 환경에서의 비교대조와 잠재적으로는 또 다른 전세계적 전염병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상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독특한 환경에서의 현실세계 이론 검증과 사법기구들에 대한 검토의 기회들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범죄학 이론들 (예를 들어, routine activities theory, deterrence and rational choice theories, self-control theory, social disorganization, cultural transmission, and social learning perspectives)은 COVID와 관련된 범죄와 사법기능들과 같이 넓은 범위 걸쳐 관련되어 있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사법 프로그램들에 대한 평가들은 비록 바이러스로 인해 중지가 되었지만, 바이러스와 형사사법의 대응들을 연계시킴으로써 평소에는 불가능했던 조기 석방을 받은 범죄자들에 대한 실험 연구와 같은 natural experiment conditions 을 가능하게 한다. 비록 바이러스의 특성과 그와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들에 대해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conceptual framework 는 바이러스와 범죄, 그리고 형사사법 대응 간의 연결성에 대한 질문들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컨셉들은 전염 (contagion) 과 억제 (containment)이다. Shelter-in-place 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전형적인 국가적 대응을 보여주는 데, 그로 인한 스포츠 경기와 엔터테인먼트 행사의 취소, 식당 폐쇄, 꼭 필요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임 등을 금지하였다. 자가 머무르기 정책과 중요한 경제 부분들에 대한 폐쇄 정책은 실업, 사회적 고립, 기초 생활 물품에 대한 경쟁 등을 불러일으켰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규정들과 자가격리 명령 저항에 대한 대응에서부터 공공 집회의 제한, 그리고 기침, 침뱉기 또는 재채기를 통한 의료업 종사자들에 대한 폭행을 처벌함에 이르기까지의 규정 준수에 대한 단속들로 인해 일상 생활은 급변하였다. 여행 제한과 지역 경계선 통제, 자가격리 요건, 사회적 고립과 거리두기 요건,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 비즈니스, 교육기관들의 광범위한 폐쇄 조치를 통해 정부는 COVID-19으로 인한 보건에 대한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한 반면, 바이러스의 또 다른 영향력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정책의 선택은 범죄 활동을 촉진시킬 수도 억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 의도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발생시킬 수 있는데, 바이러스 이전의 범죄와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들의 영향력을 앞으로의 연구에서 초점을 뒤야할 것이다.

Crime & Justice during the Virus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사람 간 접촉은 가족내 상호작용과 필수적인 정부기관, 교육, 그리고 몇몇의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연결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도 나타날 수 있는데, 늘어난 컴퓨터 사용 시간과 함께, 온라인 사기범죄에 노출과 피해가 증가할 수 있고,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이버폭력과 증오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Continued on page 9)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범죄 기회와 보호자의 요인을 좌우하는 일상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바이러스 전염의 위협으로 인한 생활방식의 변화는 이론적으로 자가격리, 경제적 스트레스, 제한된 지원 속에서 해로운 환경에 대한 증가된 노출과 관련하여 가정내 폭력, 가족 폭력의 건수와 분포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아마도 가정내 폭력, 성폭력, 불법시장, 범죄조직간의 충돌보다 개인간 폭력범죄의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다. 텅빈 거리는 강도, 차량 절도, 기타 거리 범죄들을 저지르기 위한 기회를 감소시키고, 기존의 핫스팟 지역에서의 경찰의 순찰, 범죄 감시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The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PERF) 는 2020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미국 내 30개 도시의 범죄 데이터와 같은 기간 2019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https://www.policeforum.org/coronavirus>).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처음 100일 동안 주요 도시에서 폭력 범죄가 60% 가량 감소하였지만, 현재는 안정세를 보이거나 많은 지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다. 강도와 가중폭력 범죄는 현재까지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각각 83%, 57% 감소), 83%의 도시들이 재산 범죄에 전체적인 감소를 보았으며, 2019년 같은 달들을 비교했을 때 침입 절도 범죄가 43% 감소하였다. 자가에 머무르는 것이 온라인 활동을 증가시키면서, 사이버 범죄와 우편물 절도는 증가하였다. 바이러스 기간 중 2020년 3월과 4월에 2016년 이래로 가장 많은 총기 관련 사망 건수가 있었다. 앞으로 지속적인 격리와 바이러스와의 삶을 함께함으로써 범죄 추세는 확실히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러스는 법집행기관, 법원, 교정기관의 여러가지 대응과 함께 다양한 연구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경찰관들의 바이러스 노출을 제한하려는 노력으로 몇몇 주의 경찰들은 심각하지 않은 범죄들에 대한 체포를 줄이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Nashville Police Department 는 구류 시설에서의 COVID-19 노출을 줄이기 위해 가정내 폭력과 음주 운전을 제외한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체포를 하지 않고 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법집행기관이 점점 증가하는 바이러스와 관련된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도 개인 보호 장비와 바이러스 검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 많은 경찰관들의 바이러스 접촉과 기관의 예산 압박이 커지면서, 몇몇 경찰서들은 꼭 필요하지 않은 서비스들을 축소하게 될 것이다.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는 거리두기와 확산을 줄이기 위해 안내 데스크를 이미 폐쇄하였다.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의 직원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여행과 상업 활동에 제한을 강화하고 있고,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약들에 대한 기존의 수사를 재정비하였으며, 원격 의료 시스템으로 처방된 통제 마약류에 대한 제한도 약화되었다.

미국 내 연방 법원들도 문을 닫으면서 재판을 연기시키고 있고 대부분의 주 법원들도 배심 재판을 중지하고, 대규모 공판 심리와 함께 화상으로 소송 절차를 진행하였다. 구류 시설과 교도소 시설들도 누구를 석방할 것인가의 결정과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본다.

(Continued on page 10)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석방된 자들에 대한 재범률을 추적하는 것 또한 포함되어야 하고 강조되어야 할 연구 기회라고 보여진다. 구류 시설 내 COVID-19의 전염은 법원들로 하여금 공판심리전 구금(pre-trial custody)과 구금 제재에 대해 재고하게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구두 변론을 최소 한달동안 미뤘다 (이는 1918년 Spanish flu 이후 소송 절차 진행에 있어서 가장 연기이다). 구금시설들은 방문면접과 이관 절차를 중지하였고, 변호사 접견을 제한하고, 개인 면회, 법률 조언 접견, 원격 의료시스템을 모두 화상으로 전환하였다. 범죄자들을 석방해야 하는 교정시설들에 대한 이러한 압박은 “de-carcerating”으로의 움직임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다.

Moving Forward

첫번째 단계는 높은 수준의 자가 머물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체적으로 끝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 경제를 회복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게 될 것이란 위협이 존재할 것이다. 구금 시설과 교도소 내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압박은 감금과 공공의 안전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조기 석방 정책에 대한 자연 실험 (natural experiment)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대량 감금 정책 (mass incarceration policies)에 대한 폭 넓은 재고를 가능케 할 것이다.

두번째 단계에서는 주점과 식당들이 다시 열리고 여행이 증가하면서 전세계적 유행병과 형사사법시스템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찰이 사회 활동을 재개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범죄와 범죄자에 관한 문제는 결국 어느 정도 이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고, 분리 기간 동안 나타난 특정 범죄의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새로운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지에 주목하는 것 또한 흥미로울 것이다. 또한, 형사사법시스템의 다양한 부분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상호관계의 결과로 인해 어느 정도 인력 수준의 감소를 예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바이러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으로써 직원들과 정신적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정신적 건강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는 결국 직원들의 회복력 문제 (resiliency problems)를 악화시킬 것이다.

2020년 늦가을쯤에 올 것으로 보이는 세번째 단계는 예측하기가 가장 어렵다. 여름 동안의 고온 날씨가 코로나바이러스의 활동력을 억제할거란 추측이 있지만, 가을의 선선한 날씨가 다시 바이러스의 활동을 활발하게 할 것이란 추측도 있다.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다시 올 수도 있는 비상사태를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단계에서 배운 것들에 대한 분석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의 위기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안전과 정부의 수용력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할 것이고, 대중이 공중 보건 지침을 따르는지의 여부에도 통찰을 가져다 줄 것이다.

(Continued on page 11)

Future Criminal Justice & COVID-19

바이러스는 팬데믹동안 불평등, 취약점, 그리고 관련 있는 서비스들의 차이들로 인해 나타나는 사법시스템의 수행능력을 필연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더욱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폭 넓은 형사정책 논의로의 확장을 해줄 것이다. 또한, 바이러스는 오늘날의 순진한 대중들에게 던지는 더 많은 감금은 범죄율을 낮춘다 라는 정치적 메시지보단 오히려 형사사법시스템 내의 공무원들에 의해 교정 정책들이 결정되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대량 감금률보다 네 배가 높은 현재의 대량 감금률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Miller, J. M., & Blumstein, A. (2020). Crime, justice & the CoViD-19 pandemic: Toward a national research agenda.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5(4), 515-524.

KOSCA Online Teaching Tips

편집부: 김민주

COVID-19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되며, 지난 봄학기과 여름학기 동안 교수진들과 학생들 모두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적응기간을 가졌습니다. 다가올 가을학기를 대비해 이번 10권 2호에서는 KOSCA 교수진들을 위한 성공적인 온라인 강의 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 긍정적인 태도 & 진정성 발휘하기

처음으로 Remote 또는 Online teaching을 접해보는 강의자들에게 COVID-19 사태를 맞아 급하게 온라인 강의를 구성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낯설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사용하고, 공동 목표를 공유하는 학생들을 안심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강의자가 대면강의에서 느낄 수 있는 진정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것이 학생들의 강좌 몰입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새로운 강좌 플랫폼 적응에 어려움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때 그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용자 친화적인 강좌 구성

강좌 콘텐츠는 탐색하기 쉽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디자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강의나 과제가 어디 있는지 찾기 혼란스러울 경우, 학습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Canvas에 syllabus를 업데이트하고, syllabus 계획에 맞게 매주 다른 module을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주 월요일에 폴더에 포함된 모든 작업을 열수 있게 하고 일요일에 마감시간을 정해 기간에 맞게 과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들의 step-by-step learning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제의 경우, 기한에 대한 주기적인 암시 notifications와 과제 완성에 도움이 될 만한 writing center등의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적합한 어플 선택하기

대면 수업 시간을 진행하려는 경우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적인 온라인 강의를 만들 수 있습니다. LMS에서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Zoom, GoToMeeting, Cisco Webex Meetings, Google Hangouts Meet, join.me, BlueJeans와 같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수업을 호스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의를 사전에 녹음해서 업데이트하는 비동기 강의의 경우 PowerPoint, ShowMe iPad, Camtasia, ScreenCast-o-Matic과 같은 어플들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13)

KOSCA Online Teaching Tips

4. Online discussion forum 이용

온라인 환경에서 대면 학습과 비슷한 참여도를 이끌어내기 위해 Online discussion forum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회적 존재감을 느끼고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토론 주제를 할당하고 시간을 정해 해당 주제에 대하여 참여를 이끌어 내거나 virtual meeting을 통해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론 게시물에 필요한 minimum words 와 정확한 평가 지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토론의 질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다양한 학습 방식 제공

동영상을 시청하며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 텍스트를 읽음으로써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학습 방식 선호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종류의 과제들을 혼합해서 제공하도록 하고, 학습에 도움이 될 만한 유튜브 영상, 책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 학생들의 참여 유도하기

Rios, Elliott 및 Mandernach (2018) 에 따르면, 수업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습에 만족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학생과 강사 간의 상호 작용은 학생이 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Jackson, 2019). 이를 위해, 학생들이 문제에 대해 토론 할 수 있는 비대면 및 대면 시간을 설정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자가 학생들의 질문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제공해주는 것 또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강좌 특성상 회의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Zoom등을 통한 Virtual meeting을 주선하는 것도 참여도를 높이는 다른 방법입니다.

7. 학생들의 Growth mindset 유도하기

온라인 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Growth mindset을 기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심리적 안정을 느낄 수 있게 상호존중의 환경을 조성하고, 토론 과제의 경우 정답과 오답이 없음을 사전에 암시하여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참여에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학생들의 성장 마인드를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어조보다는 일상적인 어조로 대화를 주도하고, 학생들의 똑같은 질문과 실수에도 이해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실용적인 팁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격려를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토론 게시판에 성공 마인드를 가진 지인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zoom 미팅내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토론을 장려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Continued on page 14)

KOSCA Online Teaching Tips

8. 목표설정과 그에 적합한 강의 구성하기

진정성 있는 평가를 달성하려면 강의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lassic backward course design (Wiggins & McTighe, 1998) 은 수단이 교육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즉 강의의 주요 목표를 결정하고 목표에 부합하는 하는 강의 콘텐츠를 이러한 명령에 따라 구성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기를 원한다면, 강의는 학생들이 생각과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도록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강의 진행 방식이 synchronous이냐 asynchronous이냐에 따라라도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달라집니다. Synchronous activities에서 학생들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며 다양한 관점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반면, asynchronous activities에서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정제하고 사고의 변화를 반영하여 진정성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생성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강의의 목적을 먼저 정하고 목적에 부합하는 강의 구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OVID-19사태에 대비한 온라인 티칭 팁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새로운 온라인 티칭 플랫폼에 적응하면서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한 학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References

- Rios, T., Elliott, M., & Mandernach, B. J. (2018). Efficient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maximizing online student satisfaction. *Journal of Educators Online*, 15(3), n3. Retrieved from <https://www.thejeo.com/>
- Jackson, S. H. (2019). Student Questions: A Path to Engagement and Social Presence in the Online Classroom. *Journal of Educators Online*, 16(1), n1. Retrieved from <https://www.thejeo.com/>
- Wiggins, G., & McTighe, J. (1998). What is backward design. *Understanding by design*, 1, 7-19.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

*KOSCA 뉴스레터에서는 Research, Teaching, Service 등에 있어서
 각 학교의 저명한 교수님들의 교육철학과 인생철학을 인터뷰를 통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KOSCA 회원으로써 소개해 드리고 싶은 교수님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 편집장 이희욱 교수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욱 교수: heeuklee@weber.edu).

Interview with Dr. Liqun Cao**Dr. Liqun Cao 소개**

Ph.D. Sociology, University of Cincinnati (1993)

Current/Past Positions:

2008-Present: Professor, University of Ontario Institute of Technology

2002-2008: Professor,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997-2002: Associate Professor,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994-1997: Assistant Professor, Eastern Michigan University

1993-1994: Assistant Professor, Salem State University

1992- 1993: Visiting Professor, Miami University

Research Interests: Comparative studies, Criminological Theory, Gun Ownership, Policing



Liqun Cao (Ph.D.,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1993) is Professor of sociology and criminology at Ontario Tech University, Canada. His research interests include comparative sociology, criminological theory, police legitimacy, policy on ascetic deviance, race and ethnicity in criminal justice etc. He is the author of *Major Criminological Theories: Concepts and Measurement* (2004) and leading co-author of *Policing in Taiwa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with L. Huang and I. Sun (2014). He also co-edited *Lessons of International/Comparative Criminology/Criminal Justice* with J. Winterdyk (2004) and *The Routledge Handbook of Chinese Criminology* (2014) with I. Sun and B. Heberton. His co-authored paper "Crime volume and law and order culture" (2007) won the 2008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Donal MacNamara Award – the best article of the year. He has published two books in Chinese. He was a visiting scholar at Max-Planck International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0) in Germany, a Fulbright Senior Specialist in Lithuania (2004), and the Honorary member of Albanian Institute of Sociology. He is the founding president of Association of Chinese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in the U.S. (2010 to 2012). He was a former presidential candidate of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s (2020).

(Continued on page 16)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

Que Sera, Sera

I borrow the phrase from the lyric by Doris Day as my title of this interview because I believe that I really do not have much to offer for the future criminologists. "*Que sera, sera*, for whatever will be will be. The future is not ours to see." My own life has been quite haphazard and my trajectory to become a criminologist was not predestinated, but largely by chance.

In 1986, I was enrolled in the graduate study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the University of Cincinnati. Then I met Professor Francis T. Cullen, who had a joint appointment at the department of sociology and who was Paula Dubeck's husband. Paula was the sociology department head. A few simple chats with Frank convinced me that he would be my best bet to survive sociological challenge. At that time, I had no intention to stay in the US. I was quite nationalistic as a product of my time and of my education back in China. Three years later, the June 4th Massacre of 1989 in Beijing changed me. It was a dividing point in my life and in my ideology. The bloody massacre totally sapped my confidence in the Chinese government. I gradually became a cosmopolitanist: a world citizen who prioritizes human rights over nationalism, religion, and a whole bunch of other concerns. I became a naturalized American citizen in 2000. Eight years later, I accepted a position to teach and to do research at a Ph.D. program in Canada – my current institution: Ontario Tech University.

Who has most influenced your work?

Francis T. Cullen and Paula Dubeck have been the most influential in my work as well as in my life. Indeed, both of them guided me through my master's thesis as well as my Ph.D. dissertation. I owe my entire academic life to them. When I met Frank, he was on his rise to become a star criminologist in the US. His book "*Reconfirming Rehabilitation*" established him as a scholar of correction, and he was contemplating his theory of social support in the early 1990s. The theory was formally debuted in 1993, the year that I received my Ph.D. degree. I have published several articles testing the key propositions of the theory since (Cao and Burton, 2020; Cao, Burton, and Liu, 2018; Cao and Zhang, 2017; Liu, Wang, Chui, and Cao, 2018; Zhang and Cao, 2012; Zhang, Cao and Vaughn, 2009). Building on and extending your mentor's research is the best way to return his/her favor to you. Although Frank has been a tremendous impact in my research, I was also side-tracked by many other issues of criminology/sociology, such as ascetic deviance.

(Continued on page 17)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How are you able to publish so much?**

Compared with my other co-authors, my publications in terms of the number is quite normal, not high. Steve Stack could publish 6 to 7 referred journal articles per year consistently when I met him and Frank could publish 5 to 6 referred articles plus books (both edited and monographs) per year. My average over the years (1993-2019) is about 3 referred journal articles plus a few invited and/or book reviews. The key for continued publications is to make friends with the people that you admire and/or whom you share interests. Or as a middle-aged scholar, you may want to promote a prodigy. A co-authorship is a good way to expand your research networks and often to galvanize your research. Frank has the most co-authors in criminology-circle in the world. I am perhaps having the most co-authors among Chinese American criminologists. Of course, there are sometimes drawbacks of coauthorship, but overall the benefits outweigh the drawbacks for me. It is especially so when I focus on friendship, respect, and the number of citations.

Do you ever get writer's block?

Yes, of course. It is quite normal that you encounter a situation that you could not continue or finish a work as you had previously desired. A lot of my time was wasted in untangling snafu. Being flexible is critical and being practical is also pivotal. As the saying goes, where there is a will where is a way. Be persistent and perseverant. I am sure that you will, like every other scholar, overcome the block. We should also remember that the tendency to procrastinate is to different degrees with everyone.

How many different research projects do you tend to work on at one time?

I always keep a to-do list when there are more than three tasks. In general, I was able to accomplish them although I do not always finish them in the order that I intended. I did not always have such a list, and more often than not, I went by without much to do. Partially because I had been teaching in institutions without a Ph.D. program for a long time, I have formed a habit of developing my own research agenda instead of being driven by an agenda of others, such as your students'. Everything has two sides. Teaching universities have the advantage of allowing you to develop a balance between teaching and research.

(Continue on page 18)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Do you have a specific time of the day when you prefer to do research?**

No. There are many life events that demand our attention, such as raising a family. I believe that setting a priority in life is important. Once you get the priority right, you just do things naturally. Role conflicts are part of life. Sometimes I just could not work while other times I could not sleep if I do not write down something.

How many pages do you tend to write per day?

I have not really set up any fixed pages per day for my work. Before I was promoted to the full professor, I kind of had a soft goal to publish two referred articles per year. Afterwards, I did not have any goals, but my actual numbers have increased. The number comes naturally when you are persistent. If your priority is the quantity, then it may be a good idea to set up a fixed number of pages to work on. This is particularly good when you are working on a book. If your priority is on the quality, it is my advice that you do not force yourself into writing unless you feel strongly to do so. Leisure produces the best quality of work while the deadline almost always hurts the quality. As the saying goes, "it takes time to build castles" or "Rome is not built in one day."

Are you a generalist?

Yes. I define myself as a sociology-trained criminologist. The spirit of nonchalance in specialization has guided my life so far and it will continue to do so. I have a broad interest in life and in research. As a result, I do both criminological specific research as well as sociological research. It seems difficult to define my research.

What constitutes a specific research year for you?

Again, there is no fixed number. I pay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of work than the quantity of the work. Although I'd like to publish in top-tier journals,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do so. According to "Google Scholar," my most cited article was published in a journal that was out of business (Cao, Liqun, James Frank, and Francis T. Cullen. 1996. Race, community context,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American Journal of Police* 15: 3-22). My most innovative work is not published in the top-tier journal (Cao, Liqun. 2004. Is American society more anomic? A test of Merton's theory with cross-natio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28: 15-31.). In general, it is more important to get your research out than to let it idle or to aim solely at the top-tier journals.

(Continue on page 19)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

Do you set specific productivity goals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No. Like the fixed number of pages per day, setting up unrealistic goals does you more harm than good. Personally, I believe that the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at this stage of my life, but we must also keep the administrative demand in mind. For them, the number is almost always more important than the quality. Keeping an active research agenda is just as important as setting up a goal. Your assiduous efforts will bring you to the fore. The productivity goal will be derailed one way or another in today's unpredictable world.

What would you advise junior faculty and graduate student?

The glories of academic success have been discussed ad nauseam. Let's face it, all readers of this newsletter are quite successful in their own way, considering English is not our mother tongue. The relentless pursuit of perfection — in academic status, relationships, publications — often leads to stress, anxiety, and depression. *Focus on the blessings hiding in our daily lives, and celebrating the way things are rather than how they should be. Accept our imperfections and make the most of life.* Your life is larger than your research. Your life defines your research, not the other way around. The best way to return your mentor's favor is to continue to cite their works and takes troubles to nominate them for various awards. Of course, if research is your calling, go for it. If it is a means for a better living, just do enough to get by. Teaching is as meaningful as research. Provision of services to your community and your university is also important. Devote to your family and develop a hobby. All these non-research activities will make a better person out of you and you will be happier and healthier.

References

- Cao, L., Burton, V., & Liu, L. (2018). Correlates of illicit drug use among Indigenous peoples: A test of social support theory.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2 (14), 4510-4527.
- Cao, L., & Zhang, Y. (2017). Governance and regional variation of homicide rates: Evidence from cross-national data.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61 (1): 25-45.
- Cao, L, Zhao, R., Ren, L., & Zhao, J. (2010). Social support and anomie: A multilevel analysis of anomi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54 (4), 625-639.

(Continue on page 20)

특별기획[1]: Interview with Dr. Liqun Cao

- Cullen, F. T. (1994). Social support as an organizing concept for criminology. *Justice Quarterly*, 11, 527-559.
- Cullen, F. T., & Gilbert, K. E. (1982). *Reaffirming rehabilitation*. Cincinnati, OH: Anderson Publishing Company.
Foreword by Donald R. Cressey.
- Liu, L., Wang, H., Chui, W. H., & Cao, L. (2018). Chinese drug users' abstinence intentions: The ro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Drug Issues*, 48 (4), 519-535.
- Zhang, Y., & Cao, L. (2012). Social support and corruption: A replication and confirmation of the relationship. *Issues on Juvenile Crimes and Delinquency* (in Chinese), 178, 20-30.
- Zhang, Y., Cao, L., & Vaughn, M. S. (2009). Social support and corruption: Structural determinants of corruption in the world.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Criminology*, 42 (2), 204-217.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회원 소식 (Employment)

이한나래 (Lee, Hannarae), 2020년 Marywood University ->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최경식 (Choi, Kyung-Shick), 2020년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 Boston University, Professor

박형아 (Park, Hyoungah), 2020년 Washburn University -> Saint Peter's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성일 (Han, Sungil), 2020년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 University of Louisiana at Lafayette, Visiting Assistant Professor

Research

올해 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국제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형사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재미한인범죄학회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연구자를 모집하였으며 (연구과제명: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연구비: 2천만원) KOSCA 회원중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 Seok Bum Kim, Instructor, Worcester State University.
- Yun-Sik Jang, Assistant Professor, Hallym University.
- Alice Perry, Associate Professor, Westfield State University.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최근 'KOSCA 학술분과위원회 활성화방안'에 대한 TASKFORCE (TF) TEAM의 회의와 이에 대한 KOSCA 임원단의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술분과TF회의는 공동위원장 (김빛나/최경식 교수님) 주도하에 기존의 학술분과 위원장들께서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학술분과 통합 방안: 아래와 같이 최종 5개의 학술분과를 유지하는 방안 채택됨

- 1)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위원장: 공석)
 - 문병욱 교수님께서 Chair를 맡아 운영하셨으나 최근 사임 표명으로 현재 위원장직은 공석 상태입니다.
- 2) Policing and Public Safety (위원장: 백현인 교수)
- 3)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위원장: 박인선 교수)
- 4) Cybercrime (위원장: 최경식 교수)
- 5) Women and Gender (위원장: 김빛나 교수)

통합된 학술분과

- Life-Course Criminology -> Criminological Theory and Juvenile Justice
- International Criminology and Macro-Level Analysis ->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 Corrections/Recidivism -> Policing and Public Safety
- Geo-Spatial Data Analysis and Crime Mapping -> Cybercrime

위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KOSCA임원단의 심의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 5개의 학술분과를 운영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차후 위의 5개 학술분과 이외의 다른 학술분과의 신설이 필요할 시 회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학술분과 신설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KOSCA의 각 학술분과가 개편됨에 따라 연구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회원님들을 각 학술분과별로 추가적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KOSCA 학술분과의 회원가입에 대한 문의사항은 멤버십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인선교수님께(ipark@uakron.edu) 연락 드리면 됩니다.

그 이외의 각 학술분과별 연구주제 및 기타 활동사항에 대한 문의는 해당 학술분과위원장에게 연락드릴 것을 권장합니다. 각 학술분과위원장님들의 이메일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Continue on page 23)

회원 인사 및 연구 활동

- Policing and Public Safety (위원장: 백현인 교수): h0baek01@nmsu.edu
- Korean Community and Criminal Justice (위원장: 박인선 교수): ipark@uakron.edu
- Cybercrime (위원장: 최경식 교수): kuung@bu.edu
- Women and Gender (위원장: 김빛나 교수): bitna.kim@iup.edu

COVID-19사태로 강의 및 학생관리 방식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활기찬 2020년 가을학기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KOSCA 총무 백신철 배상

학교소개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학교소개: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최신용 (chois37@unlv.nevada.edu)

안녕하십니까, 재미한인범죄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에서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신용입니다. 먼저 이번에 UNLV를 소개할 기회를 주신 재미한인범죄학회 편집위원회 담당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글이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UNLV

UNLV는 라스베이거스에 위치해 있으며, 네바다주에서 가장 큰 대학입니다.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학생수는 약 30,000명입니다. 호텔경영학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며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이 분포한 캠퍼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자유로운 편이고, 한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학 스포츠는 남자 농구와 풋볼이 인기가 많습니다. 지리적인 위치 특성상 많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정치적 행사들이 학교에서 열립니다.



주변환경

UNLV가 있는 라스베이거스는 미국에서 매우 유명한 유흥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화려한 카지노, 호텔, 술집, 식당, 클럽들이 스트립에 밀집해 있으며, 일 년 365일 내내 도박, 파티, 콘서트, 쇼 등이 열리고 있어 관광객들로 항상 도시가 붐빕니다. 그 외에도 라스베가스 주변에 그랜드캐년, 레드락캐년, 데스벨리, 후버댐 등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관광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차로 4-5시간 거리에 LA, 샌디에이고, 피닉스, 멕시코 접경 지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인 및 아시안 커뮤니티가 잘 형성 되어있어 많은 한인/아시안 식당, 술집, 마켓, 교회, 미용실, 노래방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UNLV는 남쪽 바로 밑에는 공항이, 서쪽에는 스트립이 인접해 있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물가 및 집 값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서 UNLV에서 유학 생활하는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Continued on page 25)

학교소개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날씨

사막에 위치하고 있어 여름 낮은 매우 덥지만 밤에는 시원한 편입니다. 일년에 비 내리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건조한 지역입니다. 봄, 가을, 겨울이 짧으며, 겨울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덜 추운 편이고, 눈이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범죄학 과정

UNLV Criminal Justice 학과는 학교내에서 학부생이 가장 많은 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수한 연구 실적을 보유한 교수진이 큰 장점이며 학생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은 2016년에 신설된 4년 정규과정 프로그램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 그 역사가 짧은 편이지만,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들에게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아 공부하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Continued on page 26)

학교소개 : University of Nevada, Las Vegas (UNLV)

박사과정입학

매년 2-5명 정도의 박사생들이 입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국 학생들이며, 외국학생은 저 포함 3명입니다. Admission에는 bachelor's degree, 3.5 이상의 GPA, GRE scores, TOEFL IBT, 추천서 3부, 샘플라이팅, Personal statement 등이 필요합니다. 매년 2월 1일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보통 별도의 면접 없이 바로 선발 하며, 선발 후 캠퍼스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편당

선발된 학생은 전원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TA나 GA로 일하게 됩니다. Teaching 관련 과목 이수 후에 TA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연간 약 42,000불의 편당이 약 5년간 지원됩니다. 하지만 외국학생의 경우 매 학기 약 1600불 정도 학비를 내야합니다. Stipend는 약 20,000불 정도이며 10개월 동안 나누어 지급됩니다. Conference Travel funding으로는 연간 약 1200불을 지원해줍니다. 이 외에도 Emergency funding, department funding 등 다양한 편당의 기회가 있습니다.

Coursework

졸업을 위해서는 최소 Required courses 18학점, Elective courses 30학점, Comprehensive exams 6학점, Dissertation 18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보통 3년 차에 Comprehensive exams을 치르는데 전통적인 시험이 아닌, 리서치 페이퍼를 쓰는 것으로 이수합니다. 이를 완료하면 Dissertation 단계로 넘어가며 prospectus defense와 dissertation defense의 단계를 거쳐야 박사과정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UNLV 모든 박사과정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만족하며 공부하고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이 집중하여 박사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잘 디자인된 프로그램입니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연구가 있으면 매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줍니다. 그리고 여러 교수님들과 다양한 연구의 기회도 많아 배우며 학자로 성장하기에 좋은 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세하진 않았지만, 이 글이 UNLV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박사과정 입학 준비를 할 때 학교소개코너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저에게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REENSPUN COLLEGE
OF URBAN AFFAIRS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Advertisement: SCJA

The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Research Showcase



**2020 Southern Criminal
Justice Association
Research Showcase**

Sep 08, 2020 - Sep 10, 2020

Designed by Whova

September 8—10

The all-virtual SCJA Research Showcase 2020 is upon us. Here's everything you need to know to attend:

First, you have to [register](#) (it's free). Registering allows you to attend the event. It also gives you the chance to buy raffle tickets for a cause. You can also sign up to receive limited-edition SCJA 2020 swag. Upon registering, you will receive an email with an invitation code.

Next, download the [Whova app](#) on your phone or visit the [desktop](#) site.

Once you have the app, you must create an account (it's free). **Be certain to use the same email address you used when you registered.** Once your account is set up, the event should be automatically added to your dashboard. If the Research Showcase page does not auto-populate, click "find my event", search for the Showcase, and use the invitation code that came in your registration email to manually add it.

Note: If you are not automatically granted access to the event after signing up using the same email used to register and unable to gain access using the invitation code, use the link on the same page to "request access" to the event.

Note: If you have used the Whova app previously, and your email address has remained the same, the 2020 event page should be added to your dashboard automatically.

Follow the above steps and that's it--you're in. Explore the Showcase, check out the posters, leave comments, pretend you're at the Beau Rivage.

Whova also provides a [user tutorial](#), or you can email me at webmaster@southernj.org for technical assistance.

Advertisement: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IUSteven J. Green
School of International
& Public Affairs

Ph.D. in International Crime and Justice

About the program

FIU is the ideal institution to offer the first Ph.D. in International Crime and Justice in the U.S. The international focus of the program capitalizes on its location in Miami, which serves as a global gateway and mirrors the diverse and multicultural student body living in South Florida.

The Ph.D. program is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in the Steven J. Green 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 and requires a minimum of 78 credit hours of graduate course work beyond the bachelor's degree, including a comprehensive exam and dissertation based on the student's original research. A maximum of 36 credits are transferable from a completed master's degree program with the approval of the program director. Classes are available on FIU's main campus and online.



Department of Criminal Justice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Miami, FL 33199

Funding is available

Research and teaching assistantships with tuition waivers are available to qualified doctoral students enrolled full time.

International areas of study

Transnational crime
Terrorism
Immigration and crime
International human rights
Maritime piracy and justice
Comparative crime and justice
Human trafficking and rule of law
Geospatial crime analysis



For additional information,
visit us online at cj.fiu.edu



공지사항 [1]: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회원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1) 입회원서 작성 및 제출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의 범죄 및 형사사법 연구에 관심 있는 모든 범죄학자는 KOSCA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입회원서([양식다운로드](#)-클릭)를 작성하셔서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교수)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회원께서는 신상이 변경된 경우에만 (영전 및 교수직 임용 등) 회원신청서를 재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입회원서를 보내실 때 회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차원에서 입회원서와 C.V.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박인선 교수 (University of Akron) ipark@uakron.edu

2) 학회비 (연회비) 납부 (Payable to Hannarae Lee)

보내실 곳: Dr. Hannarae Lee h2lee@bridgew.edu

Bridgewater State University

10 Shaw Road

Maxwell Library 312E

Bridgewater MA, 02324

연 회 비: 평생회원 (\$300), 교수/연구원 (\$20), 학생 (\$10)



공지사항 [2]: 학회홈페이지 업데이트 안내

학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이용 안내

학회홈페이지가 새단장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수정/변경하는데 서버를 제공하는 업체에 소정의 비용과 함께 의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감소를 위해 새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새 홈페이지에서는 회원님들께 보다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두 가지 기능들을 추가시켰습니다.

첫째, 멤버쉽 가입과 회비 납부가 온라인상에서 될 수 있도록 PayPal Payment option을 연동시켰습니다.



둘째, 새 홈페이지에서는 각 학술분과별 개별 페이지 개설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탐메뉴에 있는 Division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이버범죄분과에서 개별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www.kosca.org/division>). 개별 페이지를 개설하시고 싶으면 분과장님께서서는 웹마스터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contact>).

셋째, 학회기간동안 방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Room Sharing 페이지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원님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https://www.kosca.org/forum/room-sharing>

멤버쉽위원회에서는 회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학술정보의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Facebook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Facebook 홈피에서 KOSCA 혹은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Facebook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facebook.com/groups/330263550687261/>



공지사항 [3]: Newsletter 회원투고 안내

뉴스레터 편집위원회에서는 ‘*The Korean Criminologist*’ 을 위해 회원님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원님의 글은 회원 상호간 서로의 소식을 전하고 유익한 정보를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형식 및 내용

특정한 형식 혹은 내용에 제한이 없으며 편하게 작성 (예: 수필형식, 사진 첨부 가능)

- 최근 본인의 근황 (수기), 학교 및 학과 소개, KOSCA 발전을 위한 제언
- 최근 연구결과물의 소개, 교수법 소개, 직장 구하는 방법 및 인터뷰 요령 등

2. 원고 접수 기간 및 보내실 곳

- 원고 접수 기간 : 상시
- 보내실 곳: 뉴스레터 편집위원장 이희욱 교수 (E-mail: heeklee@weber.edu)

3. 회원 인사 및 연구 동정 소식

- 영전, 승진 등의 인사이동을 하시게 되거나, 교내 및 외부 grant 기회, 각종 시상, 책출판을 하신 회원님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면 '회원 인사 동정'을 통해 함께 축하 드립니다.

형식: (1) Grant - 연구기간, PI 또는 Co-PI 유무, Grant 지원 Institution, Title, Funding Amount
 (2) 시상 또는 Nomination 등 - 일자, 내용, Agency
 (3) 저자, 책제목, 출판일, 출판사 (APA Style)
 (4) 초청강연-발표자, 제목, 발표일자, 발표장소

참조: 회원 영전과 인사이동에 관한 소식은 Membership Committee Chair, 박인선 교수 (Email: ipark@uakron.edu)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 회원님의 책 홍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간략한 책 소개와 표지사진을 첨부하여 뉴스레터 편집 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The Korean Criminologist

Official Newsletter of the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Vol. 10, No. 2

Korean Society of Criminology in America

870 Broadway Street

Lowell, MA 01854

ISSN 2169-9924 (Print)

ISSN 2169-9040 (Online)

President: Kyung-Seok Choo (추경석)

E-mail: kychoo@utica.edu

Chief Editor: Heeuk Dennis Lee (이희욱)

E-mail: heeuklee@weber.edu

Managing Editor: David Yong Kim (김용)

Email: dyk1@iu.edu

Editorial Team: Youngki Woo (우영기: University of Texas Rio Grande Valley)

Hyojong Song (송효종: Korea University)

Jaeseung Lee (이재승: Northern Kentucky University)

Keeyoon Noh (노기윤: Pittsburg State University)

Minju Kim (김민주: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